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신(新)수도에 '가상현실 메타버스' 도입

산업·경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광역 도시권 발전계획' 발표·추진

사회·복지

여성·아동 폭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여성·아동 친화마을' 도입

청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근무환경 개선 추진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북·중·남미〉

미국

시카고	강기향
올랜도	박혜진
하와이	임지연
휴스턴	이경선

캐나다

에드먼턴	장지훈
토론토	고한나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한 울
------	-----

〈아시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	-----

인도

뉴델리	박원빈
	박효택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박재현
------	-----

중국

광저우	손지현
베이징	정민욱
충칭	모종혁

〈유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장한빛
-------	-----

독일

베를린	홍남명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스페인

바르셀로나	진광선
-------	-----

이탈리아

로마	서동화
피렌체	김예름

프랑스

파리	김나래
----	-----

신(新)수도에 ‘가상현실 메타버스’ 도입

인도네시아 / 문화·관광

인도네시아는 건설 중인 신(新)수도의 완공 전에 가상현실 메타버스 형태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Jagat Nusantara 도입을 공식 발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통해 도시의 모습을 미리 볼 수 있게 하는 한편, 청년들과 예술가들의 혁신 및 창조 활동이 펼쳐지는 장으로 조성하고자 함

배경 및 목적

-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칼리만탄섬 동부에 신(新)수도 건설 사업을 추진 중임
 - 2024년 말까지 대통령궁과 집무실 등의 1단계 완공 및 주민 입주를 목표로 함
-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청년 서약의 날(10월 28일) 기념행사에서 신수도 메타버스 도입을 공식 발표하고 본인의 아바타를 시연하는 한편, 청년들에게 창조와 혁신의 주인공이 될 것을 주문
-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가 2030년 약 310조 원 규모로 성장하고, 25세 이하 청년이 전체 시장 참여자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메타버스 환경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

주요 내용

- Jagat Nusantara로 명명된 메타버스 플랫폼은 전(前) 관광창조경제부 장관이 설립한 민간 AI 기업인 PT. Avatara Jagat Nusantara사(社)에서 관리 운영
 - 현재 인터넷 웹사이트뿐 아니라 애플 스토어, 구글 플레이 등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 중
 - 이용자들은 신수도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미리 도시의 모습을 체험하고 다양한 창조·문화 활동을 경험할 수 있음
 - 현재 대통령궁, 영화관, 예술 갤러리, 옷가게 등을 방문하고, 가로경관 관찰도 가능
 - 예술가들은 가상 콘서트 또는 디지털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자신들의 작품을 대중에게 소개하고 대중들과 교류하는 활동도 가능
 - 운영사인 PT. Avatara Jagat Nusantara는 이용자들의 행동을 분석하여 수요를 충족하는 통합적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



<https://setkab.go.id/en/president-jokowi-launches-local-digital-platform-jagat-nusantara/>

<https://www.newsfilecorp.com/release/142821/Jagat-Announces-Launch-of-NextGen-Social-Platform-to-Introduce-Indonesias-Virtual-Future-Capital-Nusantara>

박재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

성공 가능성이 높은 ‘광역 도시권 발전계획’ 발표·추진

중국 충칭시 외 / 산업·경제

충칭시 21개 區와 쓰촨성 광안시를 포함하는 ‘충칭 도시권 발전계획’은 중국 4대 직할시로는 최초인 국가급 광역 도시권 발전계획임. 충칭 광역 도시권은 면적이 3만 5,000km², 인구는 2,44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은 2조 2,300억 위안에 달해 6개의 광역 도시권 중 3번째로 많은 인구와 강력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음. 충칭시와 쓰촨성 광안시는 역사적·문화적 배경이 같고, 광안시는 충칭시의 성장에 필요한 자원이 풍부해서 광역 도시권 발전계획은 향후 성공 가능성이 높음

중국 직할시로는 최초인 국가급 광역 도시권 발전계획

- 지난 8월 충칭(重慶)시 정부와 쓰촨(四川)성 정부는 중국 중앙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승인한 ‘충칭 도시권 발전계획(重慶都市圈發展規劃)’을 공동 발표
 - 중국 4대 직할시¹⁾로는 최초인 국가급 광역 도시권 발전계획으로, 충칭 광역 도시권에는 충칭시 21개 區와 쓰촨성 광안(廣安)시가 포함
 - 2021년 이래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승인한 국가급 광역 도시권으로는 난징(南京), 푸저우(福州), 청두(成都), 창주탄(長株潭), 시안(西安)에 이어 6번째임
- 국가급 광역 도시권은 기본적인 경제력과 주변 파급력이 큰 대형 도시를 핵심 도시로 하고, 주변의 1시간 통근시스템이 가능한 도시를 포함하여 발전시키는 중국의 새로운 도시 발전계획임
 - 현재까지 승인된 6개의 국가급 광역 도시권은 동부지방에 2개, 중부지방에 1개, 서부지방에 3개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
 - 이 중 충칭 광역 도시권과 난징 광역 도시권은 행정구역상의 省을 넘나드는 광역 도시권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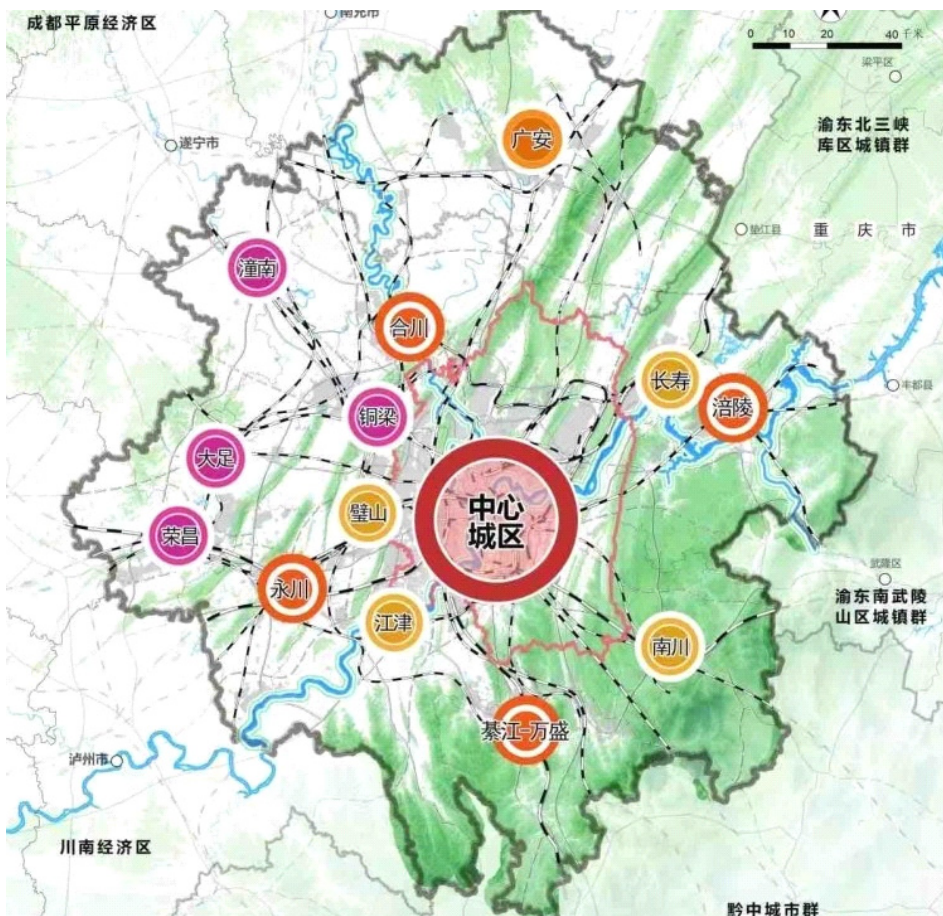
충칭 광역 도시권은 면적 3만 5,000km², 인구 2,440만 명에 달해

- 충칭 광역 도시권은 2020년 말 현재 면적은 3만 5,000km², 인구는 2,440만 명, 지역내 총생산(GRDP)은 2조 2,300억 위안에 달해 6개의 광역 도시권 중 난징, 청두에 이어

1) 중국 4대 직할시는 베이징(北京)시, 상하이(上海)시, 톈진(天津)시, 충칭시로, 이 중 베이징시, 상하이시, 톈진시는 연해지방에 위치하고 충칭시만 내륙지방에 있음

3번째로 많은 인구나 강력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음

- 이를 바탕으로 ‘충칭 도시권 발전계획’은 국제화, 녹색화, 스마트화, 인문화 등 4가지 측면에서 충칭 광역 도시권을 2025년까지 기본적인 단계로 건설하고 2035년에는 강한 경쟁력을 갖춘 현대 광역 도시권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임
 - 이를 위한 중점 추진계획으로 ▶기본 시설은 입체적인 교통시스템 구축을 통한 대외 교통망의 편리성을 강화, ▶체제 개혁은 국제 일류 수준의 행정 관리 환경을 조성, ▶개방협력은 대외개방 통로 구축 및 오픈 플랫폼을 통한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 추진, ▶산업 체계는 국가 주요 선진 제조업 센터를 건설하고, 현대 서비스업의 중심지를 건설하며, 디지털 경제의 혁신 발전을 가속화하고, 고효율의 특색 있는 농업 발전 추진, ▶과학기술 혁신은 충칭과 청두 지역에 종합 과학센터를 건설하고, 충칭 내 서부과학도시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 ▶소비는 소비 공급 능력을 향상하고 문화관광 분야의 협력을 추진



[그림] 충칭시의 광역 도시권 발전 전략 계획도 (출처: 충칭시인민정부)

‘충칭 도시권 발전계획’의 향후 성공 가능성은 비교적 높아

- 충칭市와 쓰촨省 광안市는 행정구역상으로는 다르지만 역사적·문화적 배경이 같아서 향후 성공 가능성이 비교적 높음
 - 충칭과 광안은 기원전 12세기부터 기원전 4세기까지 번성했던 고대왕국 파국(巴國)의 영역으로 역사적인 기원이 같고 서로 간의 동질성이 강함. 이에 반해 쓰촨省 성도(省都)인 청두는 파국의 라이벌이었던 촉국(蜀國)의 수도였음
 - 충칭 시민과 광안 시민이 구사하는 언어는 쓰촨 방언 중에서 충칭어이고 청두 시민이 쓰는 언어는 쓰촨 방언 중에서 청두어로, 충칭도 방언과 경상도 방언의 간극만큼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광안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충칭에 사회적, 문화적으로 속해 있었음. 개혁개방의 총설계사이자 광안이 고향인 덩샤오핑(鄧小平)의 사례가 대표적임
 - 덩샤오핑은 광안에서 태어나 15살에 충칭에서 1년 동안 학교를 다녔고, 1949년부터 1952년까지 충칭에서 근무했음. 그리고 죽을 때까지 충칭어를 사용했음
 - 충칭과 광안은 이미 3갈래의 각기 다른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고, 50분에서 1시간 까지 상호 이동이 가능
 - 이에 반해 광안과 청두는 고속도로로 4시간 이상이 소요
- 전체 면적의 75%가 산과 언덕인 충칭市 입장에서는 대부분 평지이고 지하자원과 수자원이 풍부한 광안市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임
 - 충칭市의 동부와 남부는 대부분 산간지대라서 개발이 어려웠음
 - 광안市는 천연가스, 석탄 등 지하자원과 수자원이 풍부해서 향후 충칭市의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
 - 10월 31일 충칭市 정부는 광안市와의 1시간 통근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광역 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청사진도 발표

<http://sc.people.com.cn/n2/2022/1103/c345458-40180454.html>

<https://baijiahao.baidu.com/s?id=1748185565760206023>

http://wap.cq.gov.cn/zwgk/zfxxgkml/zcjd_120614/mts/202208/t20220823_11030773.html

http://wap.cq.gov.cn/zwgk/zfxxgkml/szfwj/qtgw/202208/t20220822_11028677.html

모종혁 통신원, jhmo71@naver.com

여성·아동 폭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여성·아동 친화마을’ 도입

인도네시아 자카르타¹⁾ / 사회·복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는 코로나19 이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여성·아동 폭력을 예방하고 가정 및 아동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협력과 시너지를 기반으로 ‘여성·아동 친화마을’을 도입

배경

- 코로나19 이후로 인도네시아 내 젠더 불평등 심화와 경제적 충격으로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과 여성 및 아동의 취약성 노출이 증가
 - 여성 폭력에 관한 국가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강간, 강간미수, 부부강간, 성추행, 성노예, 성착취 등 여성 폭력 건수는 전국적으로 2020년 약 22만 건에서 2021년 약 34만 건으로 거의 50% 증가
 - 이러한 여성 폭력 건수 중 불과 12%만이 법적인 조치를 통해 해결되고 있음
 - 최근에는 온라인상에서의 여성 폭력 사고도 잦아서 2020년 940건에서 2021년 1,721건으로 1년 새 83%나 증가
 - 자카르타주의 경우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 건수가 2016년 98건에서 2021년 무려 1,037건으로 대폭 증가
- 자카르타주는 주정부의 5개년 전략 프로그램의 하나로 오늘날의 보건 위기로부터 포용적인 사회 회복을 위해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해 노력 중
 - 주요 8개 병원에 폭력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통합서비스 센터를 2018년에 설치하여 검진, 진술서 작성 지원, 심리상담, 아동상담, 법률 지원, 안전가옥 지원 등 윈스톱 서비스를 제공
 - 특히 통합서비스 센터 설치에 한국의 해바라기센터를 참고해 시행

1) 자카르타는 「자카르타 수도특별지역에 관한 법(2007년 29호)」에 따라 특별주(province)의 지위를 가지며, 직접선거로 뽑힌 주지사가 행정수장을 맡음. 자카르타주 아래에는 동·서·남·북·중앙 자카르타 5개 행정시와 연안 도서로 이루어진 플라우 스리부 행정군이 있으나, 각 시장과 군수는 선출직이 아니라 주지사가 임명하는 임명직이며 또한 의회가 존재하지 않음. 계획과 정책 수립은州政府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행정시와 행정군은 계획과 정책의 실행을 보조하는 기능을 함

주요 내용

- 자카르타州的 역량강화·아동보호·인구통제국은 가정 및 아동 복지에 기여하는 지역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아동 친화마을’을 도입·시행
 - 지역사회는 ‘협력’과 ‘시너지’의 가치 아래 보건 및 교육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여성 및 아동을 둘러싼 주변 환경 개선에 참여
 - 동 단위에서 먼저 시작해 구·시 단위로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카르타를 가장 여성·아동 친화적인 州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
 - 2022년 10월 현재 44개 구에서 각각 1개 동씩 총 44개동이 여성·아동 친화마을로 선정
 - 여성·아동 친화마을은 젠더 평등과 아동 보호 및 아동 권리의 실현을 위한 그동안의 州정부의 노력과도 궤를 같이함
- 여성·아동 친화마을 선정에는 중앙정부의 가정복지 역량강화(PKK) 프로그램의 10개 지표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연계성을 강화
 - 10개 지표는 다음과 같음
 - ① 건국 이념인 ‘판차실라’에 대한 감사와 이의 실천, ② 상부상조, ③ 식량, ④ 의복, ⑤ 주택 및 가구 관리, ⑥ 교육 및 기술, ⑦ 건강, ⑧ 협동적인 삶 개발, ⑨ 환경의 지속가능성, ⑩ 보건계획
- 또한, 자카르타州 내 경전철에도 여성과 아동을 위한 교통 서비스를 도입
 - 안전한 공공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경전철 및 경전철 역사 내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 신고 접수를 전담하는 핫라인 콜센터 서비스 시행

<https://www.beritajakarta.id/read/110772/dki-canangkan-kelurahan-ramah-perempuan-dan-peduli-anak>

<https://www.beritajakarta.id/read/111963/kementerian-pppa-apresiasi-dki-wujudkan-kelurahan-ramah-perempuan>

<https://pkk.jakarta.go.id/10-program-pokok-pkk/>

<https://www.thejakartapost.com/indonesia/2022/09/02/jakarta-recommits-to-gender-based-violence-prevention-at-u20-summit.html>

박 재 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

청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근무환경 개선 추진

말레이시아 / 사회·복지

말레이시아에서 시작한 슈퍼앱(super app)인 그랩(Grab)은 청각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2018년부터 청각장애가 있는 운전기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2022년에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비대면 주문 서비스 등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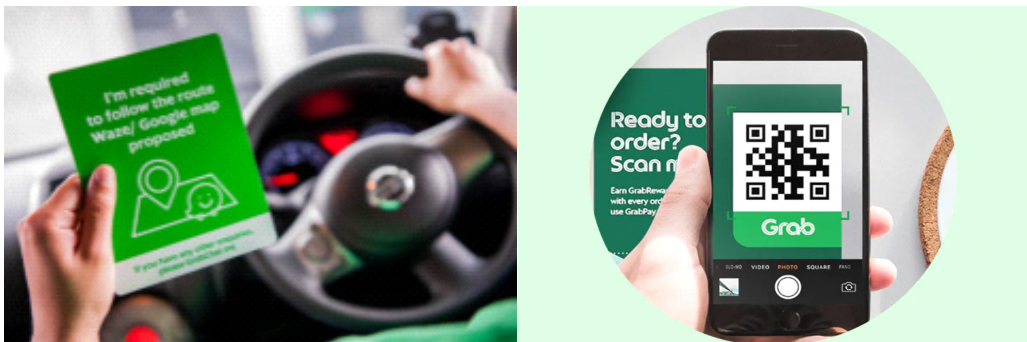
배경 및 목적

- 말레이시아 청각장애인의 취업난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40,743명이며, 난청 인구는 16만 명으로 집계
 - 청각장애인의 취업 가능 분야가 제한적이라, 다른 장애인에 비해 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2년에 차량공유 서비스를 시작한 그랩(Grab)은 2018년부터 청각장애가 있는 운전기사를 지원하는 ‘침묵을 깨자(Break the Silence)’ 프로그램을 시행
 -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4개국 청각장애인단체와 협업해 청각장애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

주요 내용

- 청각장애가 있는 운전기사(Grab Driver Partner) 지원책
 - 기사와 승객의 소통 지원
 - 그랩 차량 배차 시 승객에게 운전자 정보를 전달하고 차량 내에도 청각장애 기사라는 정보가 담긴 안내문을 제공
 - 승객은 차량을 호출할 때 그랩 앱으로 목적지를 미리 지정하기 때문에 운전자와 많은 의사소통은 불필요
 - 필요한 의사소통을 위해 큰 그림과 영어 문장이 쓰인 그림카드와 앱으로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실시간 채팅 기능을 도입
 - 기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
 - 이용자가 쉽게 배울 수 있는 간단한 수어(手語)와 관련 영상을 공식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공유

- 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운전자 위원회(OKU Driver-Partner and Deaf Delivery -Partner Representative Committee, DRC)를 조직해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지역별로 가족 모임, 스포츠 행사 등을 지원
- 그랩 앱을 사용하면 적립되는 포인트를 청각장애인 지원 기관에 기부하는 사회 공헌 캠페인을 상시 진행
-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청각장애인(Grab Merchant Partner) 지원책
 - 비대면 주문(Scan To Order) 기능 도입
 - 올해 2월 도입한 비대면 주문 결제 기능으로, 메뉴 보기와 주문 등과 연동된 결제 시스템으로 결제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
 - 직원이 청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명찰을 제공
 - 청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근무환경 개선
 - 그랩은 점주에게 말레이시아 청각장애인협회에서 교육받은 직원을 연결하고 3개월간의 점주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 점주가 청각장애인 직원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랩 앱을 통해 간단한 수어 사전을 제공해 청각장애인 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



[사진] 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그림카드와 비대면 주문 기능 도입 (출처: 그랩)

<https://www.lowyat.net/2022/265901/grab-scan-to-order-dine-in-contactless-inclusive/>

<https://says.com/my/news/what-grab-is-doing-to-help-oku-community>

<https://www.theborneopost.com/2018/12/02/ensuring-a-more-inclusive-world-for-the-deaf/>

홍성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

세계도시동향 제539호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2년 11월 28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 개발과 도시 관련 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들이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